

元代 雜劇 中の 復讐 주제와 그 배경

金明學*

◁ 목 차 ▷

- I. 서론
 - II. 복수주제의 유형과 성격
 - III. 복수주제의 배경
 - 1. 사회적 배경
 - 2. 문화적 배경
 - IV. 결론
-

I. 서론

元雜劇은 중국희곡사에서 최초의 완전한 형식의 극양식으로 내용이 풍부하고 제재와 주제가 다양한 것이 하나의 특색이다. 元雜劇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짚진하게 반영하여 원대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복수주제를 표현하는 작품이 양적으로 많고 비중이 크다는 사실은 또 하나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

복수는 피해자가 침해를 당한 상황에서 부득이 취하는 극단적인 보복방식으로 인류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있어왔다. 복수는 인간과 인간 간의, 또는 사회관계에서 야기되는 극단적인 충돌이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 선악·윤리도덕과 같은 가치와 연계되면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화현상이다. 그래서 복수는 수많은 사상가·정치가들의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자, 문학의 전통적인 주제의 하나이다. 중국문학에서 복수는 그 역사가 길고 비중이 큰 주제의 하나이다. 문학에서 복수주제는 복수의 동인·과정·결말을 통하여 인간관계·가치관·윤리규범은 물론, 복수를 둘러싼 제반

* 충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사회현상과 문화현상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지금까지 元雜劇의 복수와 관련한 연구 논문이 몇 편 있다. 胡淑芳은 〈元雜劇의 復仇精神〉¹⁾에서 복수가 플롯이 되는 작품의 범위를 정하고, 元雜劇에서 전통적인 복수 사상을 계승한 양상을 밝히고, 복수의 방법으로 “清官”의 도움, 협객의 원조, 귀신의 伸冤 등으로 나누어 다루었다. 葉三銘은 〈元雜劇中復仇之情節與人物〉²⁾에서 복수의 내용, 복수의 플롯 구조, 복수의 방법, 복수의 대상 등을 세분하여 검토하였다. 이외, 宗敏은 〈元雜劇中的復仇題材—以《竇娥冤》和《趙氏孤兒》爲例〉³⁾에서 두 편의 원잡극 작품을 대상으로 복수제재를 고찰하였고, 徐忠明은 〈傳統中國民衆의 伸冤意識：人物與途徑〉⁴⁾에서 일부 元雜劇 중의 복수를 언급하였고, 王立는 〈鬼靈文化與中國古代復仇文學主題〉⁵⁾에서 귀신에 의한 복수를 고찰하면서 일부 元雜劇의 경우를 언급하였다. 蘇力는 〈復仇與法律—以《趙氏孤兒》爲例〉⁶⁾에서 〈趙氏孤兒〉를 대상으로 복수와 법률의 관계를 다루었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元雜劇 중의 복수주제를 고찰하되, 기존 논문에서 애매모호하게 설정한 복수주제의 대상작품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범위를 정하고, 그것을 다시 유형별로 나누어 복수주제의 성격을 밝히고, 복수주제의 배경을 고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본고에서 사용한 텍스트는 藏晋淑의 《元曲選》본인데, 正學奇가 주편한 《元曲選校注》⁷⁾를 활용하였음을 밝힌다.

II. 복수주제의 유형과 성격

元雜劇 중의 복수주제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상 작품의 범위를 설정해야 하고 그것을 위한 유용하고 포괄적인 정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元雜劇 중에

1) 胡淑芳, 〈元雜劇의 復仇精神〉, 《湖北大學學報》, 第31卷 第5期, 2004.
 2) 葉三銘, 〈元雜劇中復仇之情節與人物〉, 國立成功大學 藝術所 碩士學位論文, 1999.
 3) 宗敏, 〈元雜劇中的復仇題材—以《竇娥冤》和《趙氏孤兒》爲例〉, 《文藝論叢》2007年11月.
 4) 徐忠明, 〈傳統中國民衆의 伸冤意識：人物與途徑〉, 《學術研究》2004年 12期.
 5) 王立, 〈鬼靈文化與中國古代復仇文學主題〉, 《濟魯學刊》1992年 第六期.
 6) 蘇力, 〈復仇與法律—以《趙氏孤兒》爲例〉, 《法律研究》2005年 第1期.
 7) 正學奇 主編, 《元曲選校注》(全四冊), 河北教育出版社, 1994.

는 복수 내지는 복수의식을 드러내는 서사구조를 가진 작품이 수적으로 많고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범주를 확정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아 보인다. 물론 몇몇 역사극의 경우는 복수의 주체와 대상이 분명하고 복수 과정이 전체 서사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얼른 복수주제의 범위에 넣어도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역사극처럼 복수주제를 그렇게 명시적·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인물의 행위와 서사구조를 통해 암시적으로 표방하는 작품이 많이 있다. 公案劇과 水滸劇 중의 일부가 그것이다. 사실 이 유형의 작품을 복수와 관련시켜 그 특성을 파악한 예가 일찍이 있었다. 李春祥이 「元代的 包公劇과 水滸劇은 봉건통치계급과 사회의 사악한 세력이 인민을 박해하는 암울한 현실을 폭로하고 인민이 伸冤하고 복수하려는 원망과 이상을 반영하였다」⁸⁾라고 하였고, 鄭振鐸이 公案劇을 「간악한 무리들을 처단하여 억울함과 원한을 푸는 이야기」⁹⁾라고 정의한 것이 예이다. 다만 지금까지 公案劇·水滸劇·包公劇 등으로 분류했고, 복수와 관련시켜 성격을 규정하거나 분류하지 않았을 뿐이다. 본고에서는 공안극과 수호극 중에서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冤抑을 맺고, 피해자가 그것을 풀기 위하여 취하는 행위가 복수 성격을 띠고, 제3의 행위체가 피해자의 冤抑을 해소해주는 서사구조를 가진 작품'을 복수주제에 포함시킨다. 범죄의 징치 과정에서 복수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근본정신이 복수 성격을 띠면 피해자의 복수를 대행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면 원잡극 중의 복수주제는 역사극 중의 몇몇 작품을 하나의 범주로, 공안극과 수호극 중의 일련의 작품을 또 하나의 범주로 묶어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두 유형은 소재가 각각 역사사실과 현실생활이라는 차이 외에도 복수의 동기·주체·과정의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분류하여 고찰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으로 보인다. 이것을 근거로 대상 작품의 범위를 정하면 역사극 5편, 공안극 14편, 수호극 5편으로 모두 24편이다.

역사극: 紀君祥의 〈趙氏孤兒〉, 李壽卿의 〈伍員吹簫〉, 楊梓의 〈豫讓吞炭〉, 高

8) 李春祥, 〈元人雜劇反映元代民族關係的幾個問題〉, 「元代的包公戲和水滸戲, 揭露了元代封建統治階級和社會邪惡勢力迫害人民的黑暗現實, 表達了人民要求伸冤報仇的願望與理想。」(《河南師大學報》1980年 第2期), 60쪽.

9) 鄭振鐸, 〈元代“公案劇”產生的原因及特質〉, 「摘奸發覆, 洗冤雪枉」, 《鄭振鐸選集》(四川文藝出版社, 1990), 565쪽 참조.

文秀의 〈諍范叔〉, 無名氏의 〈馬陵道〉

공안극: 關漢卿의 〈竇娥冤〉·〈蝴蝶夢〉·〈魯齋郎〉, 孟漢卿의 〈魔合羅〉, 武漢臣의 〈生金閣〉, 鄭廷玉의 〈後庭花〉, 陸登善의 〈勸頭巾〉, 李行甫의 〈灰闌記〉, 無名氏의 〈盆兒鬼〉, 無名氏의 〈開封府〉·〈硃砂擔〉·〈馮玉蘭〉·〈陳州糶米〉·〈延安府〉

수호극: 高文秀의 〈雙獻功〉, 李文蔚의 〈燕青博魚〉, 李致遠의 〈還牢末〉, 無名氏의 〈三虎下山〉·〈黃花峪〉

그런데 기존의 연구에서 胡淑芳은 〈元雜劇의復仇精神〉에서 분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元曲選》과 《元曲選外篇》 중에서 복수 플롯을 다루는 잡극 작품은 약 20여 편」이라고 밝히고 대상 작품은 명시하지 않았다.¹⁰⁾ 또 葉三銘은 〈元雜劇中復仇之情節與人物〉에서 「藏晉淑의 《元曲選》과 隋樹森의 《元曲選外編》에 수록된 162편의 元雜劇에 의거하여 그 중에서 복수 플롯을 다룬 18편을 선정해 연구대상으로 한다」고 밝히고 대상 작품을 명시하였다.¹¹⁾ 이 두 연구와 본 논문에서 분류한 작품의 편수나 대상 작품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두 논문에서 분류 기준을 밝히지 않아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다만 복잡한 사회 현상을 반영하는 문학작품을 일정변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유형과 유형 간에는 애매모호한 경계가 있기 마련이다.

역사극 중의 복수주제의 대상 작품은 역사사실에서 제재를 취하였다. 〈趙氏孤兒〉·〈伍員吹嘯〉는 복수의 전 과정이 서사의 중심축이 되고 결말에서 잔혹한 복수가 결행되어 복수극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趙氏孤兒〉는 《史記》에서 취재하였다. 晉國의 문반과 무반을 대표하는 두 권력자 趙盾과 屠岸賈의 해묵은 불화와 갈등이 계기가 되어 屠岸賈가 靈公에게 참소하여 趙盾 일가 300여명을 살해하고, 靈公의 명이라고 조작하여 부마 趙朔을 자살하게 한다. 趙朔은 죽으면서 공주에게 장차 사내아이를 출산하면 이름을 “趙氏孤兒”라고 짓고 “滅門之禍”에 대한 복수를 하라고 유언하였다. 공주가 이들을 잉태하

10) 胡淑芳, 앞의 〈元雜劇의復仇精神〉: 「現存於《元曲選》《元曲選外編》中涉及復仇情節的雜劇作品約有二十多種。」(《湖北大學學報》, 第31卷 第5期, 2004) 552쪽.

11) 葉三銘, 〈元雜劇中復仇之情節與人物〉: 「依據藏晉叔《元曲選》及隋樹森《元曲選外編》收錄的一百六十二種元雜劇, 選出其中涉及復仇情節的十八本爲研究對象。」(國立成功大學 碩士學位論文, 1999) 5쪽.

자 屠岸賈는 고아가 공주 집안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군사를 동원하여 봉쇄하였다. 고이는 충신과 의로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장성한 후 屠岸賈 가속 300여명을 살해하는 처절한 복수의 과정이 서사의 축이다. 작품에서는 후환이 두려워 이른바 “翦草除根”하려고 고아의 유출을 금지시켰고, 그럼에도 고아가 사라지자 여섯 달 미만 된 전국의 영아를 모조리 잡아들여 살해하라는 명을 내리는 도안고와, 고아가 장성하여 복수할 수 있도록 고아를 빼돌려 자기의 아들과 바꾸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程榮, 고아의 유출을 눈감아주고 자결하는 屠岸賈 휘하의 장군 韓厥, 모든 일을 성사시키려고 자결하는 公孫杵臼 간의 대결이 탄탄한 극적구조를 이루고 있다.

〈伍員吹簫〉는 《史記·伍子胥列傳》에서 취재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복수 이야기이다. 伍子胥가, 간신 費無忌의 참언을 듣고 자신의 부친을 포함한 일가 300명을 살해한 楚, 平王과 費無忌에게 자행한 복수 이야기이다. 伍子胥는 費無忌의 추적을 楚國을 탈출한 후 복수의 일념으로 모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吳國의 10만 精兵을 빌려 楚를 정벌한 후 費無忌를 살해하고 平王의 시체를 300대 매질하여 복수를 갚는다. 후환을 없애기 위해 平王의 명이라고 날조하여 伍子胥 형제를 입조하라고 명하는 費無忌, 정의감이 발동되어 이 사실을 사전에 伍子胥에게 알려주어 도망치게 하는 公子 芋建, 伍子胥의 도망을 돕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浣紗女와 閻丘亮의 의로운 행위, 伍子胥가 平王의 시체에 매질을 가하는 광적인 복수 행위 등이 복수의 복잡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豫讓吞炭〉은 《國語·晉語》와 《史記·晉世家》·《史記·刺客列傳》에서 취재하였다. 晉의 智伯의 家臣 豫讓이, 자신의 주인의 살해하고 영토를 빼앗고 두골에 옷칠을 하여 飲器로 만든 趙襄子에 대한 복수를 자행하는 이야기이다. 豫讓은 복수 시도가 두 번 실패하자 세 번째는 趙襄子에게 옷을 벗어달라고 하여 검으로 옷을 찌르고 복수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내가 오늘 검으로 당신의 의복을 찢었으니 당신을 살해하는 것과 같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¹²⁾고 하고 자결한다. 복수의 일념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몸에 옷칠을 하여 문둥병이 들게 하고, 숲을 삼켜 목이 쉬게 하여 목소리를 바꾸고 미치광이를 가장하여 걸식을 하면서 복수를 준비하는 豫讓의 강렬한 복수의지, 豫讓이 조양자의 옷을 검으로 찌르는 상징

12) 楊梓, 〈豫讓吞炭〉第四折: 「(拔劍將襄子衣服碎剝科, 云)罷, 罷, 我今日劍鏗了你這衣服, 就和殺了你一般, 死亦無恨。」

적인 복수를 완수한 후 후한 대우를 약속하며 자기의 휘하가 되라는 조양자의 청을 거절하는 행위는 범상을 초월하는 복수라고 할 수 있다.

〈諱范叔〉과 〈馬陵道〉는 모두 소인배가 타인의 재능을 시기해, 해를 끼친 응졸한 행위에 대하여 복수하는 이야기이다. 〈諱范叔〉은 《史記·范雎蔡澤列傳》에서 취재하였다. 魏國의 范雎가 자신의 능력과 인물됨을 시기하여 적과 내통하고 한다고 모함하여 자신을 죽이려한 須賈에게 복수하는 이야기이다. 〈馬陵道〉는 《史記·孫子吳起列傳》을 부연하여 이루어졌다. 魏國의 孫臏이 동문수학한 龐涓에 대해 복수를 자행하는 이야기이다. 龐涓은 魏國의 元帥가 된 후 孫臏을 추천하여 군을 통솔하는 직책을 맡기고 적과 내통한다는 음모를 꾸미어 그의 다리를 자르는 형벌을 받게 하였다. 孫臏은 미치광이로 가장하며 연명하다가 子夏의 도움으로 齊國으로 도망쳐 軍師가 되어 군대를 지휘하여 계략을 써 龐涓을 馬陵道로 유인하여 죽이고 시체를 여섯 도막내어 원한을 갚았다. 두 작품에서는 복수의 주체가 복수의 일념으로 역경과 분투하는 과정이 비장하며 원한에 대한 철저한 복수의식과 은덕에 대한 충실한 보은의식이 보인다.

역사극에서 복수주제는 복수의 명분과 가치관을 분명히 드러낸다. 첫째 “有恩報恩, 有仇報仇”는 모든 작품에 깔려있는 공통적인 복수의 명분이다. 그러면서도, 부친과 혈족의 원수에 대한 복수심은 더욱 강렬하게 표출된다. 〈趙氏孤兒〉와 〈伍員吹嘯〉는 혈족을 살해한 원한에 대한 복수로서 「그가 우리 일족을 살육하였으니 나는 그에게 구족을 죽이는 것으로 갚아야 한다」¹³⁾ 「부모의 원수와는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¹⁴⁾는 것이 복수의 명분이다. 전통적인 복수 관념을 반영한 것이다. 유가의 전통에서 「부모의 원수와는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¹⁵⁾나 「부모의 원수를 갚지 않으면 자식이 아니다」라는 윤리규범의 강조는 자식에게 부모의 원수를 갚는 권한을 무조건적으로 규정하였고, 복수의 야만성에 대한 반성이나 복수를 제지하는 요소가 결여된¹⁶⁾ 문화 속에서 복수는 하나의 윤리적 사명으로 수용되었다. 또, 이것은 종법제도의 사회에서 가문과 혈연을 중시하는 문화가 반영된 것이기도

13) 紀君祥, 〈趙氏孤兒〉第四折【爰篇】: 「他他他, 把俺一姓戮; 我我我, 也還他九族屠。」

14) 李壽卿, 〈伍員吹嘯〉第一折: 「父母之仇, 不共戴天。」

15) 《禮記 曲禮》: 「父之仇不與共戴天。」

16) 王立, 《中國古代復仇文學主題》,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8, 14쪽 참조.

하다. 셋째, 복수에 대한 보상으로 “역사 기록에 이름을 남기는 것(史冊上標名)”을 고도로 의식했다. <趙氏孤兒>에서 公孫杵臼가 의로운 죽음을 택하면서 「명예로운 이름이 만고에 알려지지 않더라도 鉏麴와 함께 충성스러운 영혼이 되겠다」¹⁷⁾, 程勃이 복수가 끝난 후 「사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후세 사람이 이야기 하도록 남게 되었다」¹⁸⁾ 하였다. 또 <伍員吹嘯>의 결말에서 伍子胥는 「은혜와 원수를 다 갚았으니 지금부터는 후련한 인생, 천고의 영웅으로 기록되어 남는다」¹⁹⁾고 한다. <豫讓吞炭>에서 豫讓은 「인간 세상에 명성이 나기를 바라지 않고 이름을 역사에 기록하고 싶다」²⁰⁾고 하였다. 모두 복수를 의로운 일로 간주하여 복수를 통하여 “명성 불후(聲名不朽)”를 기대한 행위이다. 넷째, <豫讓吞炭>에서 보이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복수한다」²¹⁾ 義를 중시하는 의협의 가치관의 표현이다. <豫讓吞炭>에서 주인에 대한 家臣의 복수, 옷을 찌르는 것으로써 복수하였고 주인의 대한 보은을 다했다고 자위하고 자결하는 豫讓의 행위, 「주인을 위해 복수를 하니 진정한 義士」라고 豫讓을 치켜세우는 趙襄子의 태도 등은 모두 범상을 초월하는 행위로서 義를 강조하는 작가정신의 발로라고 할 수 있겠다.

공안극과 수호극에서는 범죄의 발생과 징치 과정을 서사의 축으로 하고 가해자·피해자·판관이라는 행위체가 있어, 복수가 어떤 인물에 의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말이 어떠한 가를 잘 드러낸다. 이 유형은 정형화된 도식을 가진다. 바로, 물리적으로 강하나 윤리적으로 사악한 가해자와 물리적으로 약하나 인간적으로 선량한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편을 드는 재판관 사이의 역학관계가 서사의 축이 된다.²²⁾ 사악한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피해자는 冤抑을 맺고, 그것을 풀

17) <趙氏孤兒> 第三折【賺賺煞尾】:「便留不得香名萬古聞, 也好伴鉏麴共做忠魂。」

18) <趙氏孤兒> 第四折【黃鐘尾】:「落的個史冊上標名, 留與后人講。」

19) <伍員吹嘯> 第四折:「報恩仇從此快平生, 堪留作千古英雄記。」

20) <豫讓吞炭> 第四折【尾聲】:「我不想聲聞在人世間, 名標在史記中。」

21) 楊梓, <豫讓吞炭> 第四折:「范氏、中行氏以常人待我, 我故以常人待之; 智伯以國士待我, 我故以國士報之。【二煞】士爲知己死, 女爲悅己容。」

22) 김열규는 (우리나라의) 중세기 원한의 서사문학에서 행위체를 물리적으로 강하나 윤리적으로 사악한 박해자와 물리적으로 약하나 인간적으로 선량한 피박해자, 그리고 피박해자의 편을 들 정의의 재판관 등으로 삼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金烈圭, <怨恨과文學의 만남—敘事的 推理라는 觀點에서—>, <韓國文學의 두 問題>(서울, 學研社, 1985), 22—23쪽 참조.

기 위하여 또 원한을 갚기 위하여 일련의 행동을 취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그래서 피해자는 피동적인 피해자의 위치에서 능동적인 복수자로 변이된다. 그런데 피해자는 복수의식은 강하지만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역량으로 복수를 이행할 수 없어, 복수는 제 3의 행위체인 관관에게 이양된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복수주체의 성격을 살펴보자.

가해자는 주로 세도가·강도·무뢰한·奸婦·탐관오리 등 사악한 무리이다. 가해자는 온갖 잔악한 범죄를 저지른다. 세도기는 「나는 권세가이자 대대로 고관을 지낸 집안의 자손으로 사람을 죽여도 목숨으로 보상하지 않고, 사람 죽이는 것을 처마의 기와 한 장을 떼는 것과 같이 한다」²³⁾는 식으로 특징되는 인물로 권세가 대단하다. 그래서 세도기는 걸핏하면 사람을 죽이고, 마음에 드는 물건을 강탈하고, 남의 아녀자를 강제로 차지하는 등 무소불위의 악행을 저지른다. 〈蝴蝶夢〉에서 葛彪가 자기가 탄 말에 부딪혔다고 노인을 때려죽이고, 〈生金閣〉에서는 龐衙內가 郭成을 살해하고 가보를 강탈하고 처를 빼앗는 것이 좋은 예이다. 강도는 타인의 재물을 탈취하기 위하여 살인을 일삼고, 심지어는 피해자의 처를 강탈하기도 한다. 〈硃砂擔〉과 〈盆兒鬼〉에서는 강도가 행상을 살해하고 재물을 강탈하는 범죄를 저지른다. 〈硃砂擔〉의 강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행상의 부친마저 살해하고 그의 처를 강탈한다. 무뢰한은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는 유형이다. 〈竇娥冤〉에서 張驢兒는 과부 竇娥를 강제로 차지하려다 실패하자 竇娥에게 살인죄를 뒤집어씌워 관가에 무고한다. 〈魔合羅〉에서 李文道는 사촌 형을 살해하고 재물을 빼앗고 형수를 차지하려다 형수가 거절하자, 형수가 간부와 짜고 남편을 살해했다고 무고한다. 奸婦는 외간 남자와 사통하면서 본남편을 살해하거나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친족을 살해하기도 한다. 가해자가 저지르는 범죄의 특징은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잔인하고, 잔악하고, 패륜적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복수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를 설정한 것이다.

탐관오리는 오심 재판에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이다. 탐관오리는 무능과 부패로 특징된다. “官員은 무능하고 吏員은 뇌물을 탐낸다(官無能, 吏貪贓)”는 공식을 적용할 수 있다. 貪官은 「비록 관직에 있기는 하지만 법률은 알지 못하고, 돈만 있으

23) 無名氏, 〈陳州糶米〉 楔子: 「我是那權豪勢要家, 累代簪纓之子, 打死人不要償命, 如同房簷上揭一箇瓦。」

면 訟事는 만사해결²⁴⁾이라는 식의 인물이고, 汚吏는 탐관의 무능을 이용해 뇌물을 챙기고 재판에 간여해 시비를 왜곡시키는 등 갖가지 농간을 부린다. 탐관오리는 그들의 무능과 부패로 인하여 많은 원옥을 조성하여 피해자의 冤抑을 가중시킨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저지르는 범죄에 희생된 가족, 가해자의 무고에 연루되는 당사자, 때로는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원한을 품는다. 범죄행위가 간악할수록, 패륜적일수록 원한은 더 깊다. 그런데 피해자의 원한이 반드시 복수심으로 변하고 복수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복수주제를 드러낼 수 있다. 〈竇娥冤〉에서 竇娥는 무죄한 무고하고 관가가 부패하여 억울한 사형을 받으면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복수심을 키우고, 원혼이 되어서도 「매일 울먹이며 望鄉臺를 떠나지 못하고, 안절부절 원수를 기다린다」²⁵⁾고 한다. 또 〈陳州糶米〉에서 張愨古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휼미를 파는 小衙內에게 항의하다 紫金鎚에 맞아 죽으면서 「이기고 지는 것은 일정하지 않지만 보응은 분명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내가 곧 죽어 저승에 가 신령에게 고소하여 잡아다 재판정에 세워 자백을 받고 내 목숨을 보상받아야 한을 풀릴 것이며, 만일 죽이지 않는다면 송골매 같은 눈을 감지 않을 것이다」²⁶⁾라고 한다. 또 그의 아들 小愨古는 「아버지 자식으로 태어나 아버지 원수를 갚지 않으면 장가가 아니지」²⁷⁾라고 한다. 〈硃砂擔〉에서 王文用은 강도에게 재물을 강탈당하고 살해당한 후 그 冤鬼가 「지금 나의 원귀가 저승으로 가지 못하니, 너에게 내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²⁸⁾고 한다. 피해자들은 모두 강한 복수심을 가지지만 최종적인 복수는 정의의 판관에게 맡겨진다. 이 판관이 伸冤과 복수의 주체가 된다.

판관은 관부의 현명하고 유능한 관리, 명계의 신령, 독립호한이 있다. 이 3자는 같은 기능의 서로 다른 표현이다. 이들은 「만일 청렴한 官員이 없고, 훌륭한 胥吏가 없다면 내가 누구에게 호소한다 말인가」²⁹⁾, 「하늘에 호소하려니 하늘은 또 높

24) 李行甫, 〈灰闌記〉第二折: 「雖則做官, 律令不曉, 但要白銀, 官事便了。」

25) 關漢卿, 〈竇娥冤〉第四折【新水令】: 「我每日哭啼啼守住望鄉臺, 急煎煎把驢人等待。」

26) 無名氏, 〈陳州糶米〉第一折【青哥兒】: 「雖然是輸贏輸贏無定, 也須知報應報應分明。……我便死在幽冥, 決不忘情, 待告神靈, 拿到階庭, 取下詔承, 償俺殘生, 苦恨才平。若不沙則我這雙兒鶻鶻也似眼中睛, 應不瞑。」

27) 無名氏, 〈陳州糶米〉第一折: 「此生不是空桑出。不報冤仇不姓張。」

28) 〈硃砂擔〉第四折: 「我如今冤魂不散, 少不的和你索命。」

29) 王仲文, 〈救孝子〉第三折【粉蝶兒】: 「若是沒清官, 無良吏, 教我對誰分訴。」

이 있고, 언제나 청렴한 관원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을까³⁰⁾라는 사회적 약자들의 갈망에 대한 반응으로 등장한다.

관부의 판관으로는 역사에서 청렴하고 유능했던 몇몇 “清官”이 등장한다. 그중에서 包拯이 출현빈도가 가장 많고 유명하다. 그는 宋代의 開封府를 다스렸던 역사 인물로서 天章大閣制·龍圖閣學士를 역임했고 청렴·결백하기로 유명했다. 그래서 후대에는 청렴한 관리를 가리켜 “龍圖再出”, “龍圖後出”이라고 불렀다. 宋代 이후 속문학에서 包待制·包龍圖·包公이란 이름으로 자주 등장하였다. 작품에서는 일정 정도 역사인물을 원형으로 했지만 대중의 염원과 희망이 기탁되어 미화·이상화·신격화되었다. 包拯은 황제가 일임한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勢劍金牌”를 소지하고 낮에는 이승, 밤에는 저승을 왕래하며 귀신과 소통하고 권세가·탐관오리·사악한 세력을 단호하게 응징한다.

범죄자의 치죄는 冥界의 신령이 맡기도 한다. 국법의 영역 밖에 또 하나의 도덕 법정을 세우고 한 사람의 정의의 판관을 둔 셈이다. 〈硃砂擔〉에서 행상 王文用이 강도에게 살해당하면서 「내 재산을 탐내어 내 목숨을 해치니 陰間에 가서 너를 고소하겠다³¹⁾」고 하여, 재판이 명계에서 이루어진다. 강도가 王文用을 죽이는데 그치지 않고 그의 부친도 살해하고 그의 처도 강제로 차지하자 東嶽太尉神이 강도를 森羅殿으로 잡아들이게 하여 치죄한다.

水滸劇에 나오는 梁山泊은 또 하나의 법정이다. 수호극은 권력의 꺾박을 받아 할 수 없이 양산박 산채에 모여든 영웅 호한들이 “하늘을 대신하여 천도를 행한다(替天行道)”는 대의명분을 내걸고 사회의 사악한 세력과 대결하는 이야기로 구성된다. 양산박은 말하자면 민간의 사설 법정이다. 宋江이 판관, 李逵·關勝·徐寧·花榮·揚雄 등이 휘하이다. 이들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정의감, 불평부당한 일을 묵과하지 못하는 의협심,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갖추었다. 이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세도가, 범죄를 저지르는 사악한 세력을 양산박으로 잡아들여 단호하게 처형한다.

공안극과 수호극의 결말은 판관의 판결로 이루어진다. 판관은 판결문을 통해 가치지향을 분명히 밝힌다. 여기에 주제의식이 집중되어 있다.

30) 李行甫, 〈灰闌記〉第二折【浪裏來煞】:「告天天又高, 幾時節盼的個清官來到。」

31) 無名氏, 〈硃砂擔〉第二折:「你今日圖了我財, 致了我命, 在陰司告你。」

張驢兒는 친아버지를 독살하고 과부를 강탈하려고 하였으니 능지처참해야 마땅하니 저자에 압송하여 목판에다 못으로 박아 고정시키고 칼로 일백이십 번 도려내어 처형한다. (張驢兒毒殺親爺，姦佔寡婦，合擬凌遲，押付市曹中，釘上木驢，剛一百二十刀處死。)(《竇娥冤》第四折)

이 자를 酆都로 압송하여 가가지 고통을 당하게 하고 영원히 餓鬼로 만들어 왕문용의 원수를 갚게 하라. (將這廝押赴酆都，受諸苦惱，永爲餓鬼，以報王文用之仇。)(《朱砂担》第四折)

蔡衙內를 잡아들여 나에게 끌고 와 처형하라. (拿住蔡衙內也，與我拿出去，殺壞了者。)(《黃花峪》第四折)

인용문은 세 유형의 관관이 내리는 판결이다. 모두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명시되어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복수이거나 복수적인 성격을 띤다. 판결이 아예 복수인 경우도 있다. 〈陳州糶米〉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紫金鎚로 때려죽였기 때문에, 包拯은 피해자의 아들에게 紫金鎚로 가해자를 직접 때려죽여 부친의 원수를 갚으라고 판결한다. 대중의 의식에 영합했고 대중의 법의식을 반영하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만든 법, 법이 해결하려는 많은 문제는 복수와 관련되고³²⁾ 형벌의 근본정신은 복수이다. 인류가 점차 이성적인 사유와 제도를 모색하면서 교화라는 명분으로 포장하기는 하였지만 개인의 법의식은 여전히 복수적인 성격을 떨 수밖에 없다.

Ⅲ. 복수주제의 배경

1. 사회적 배경

복수주제의 배경은 크게 사회적인 요인과 문화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복수는 사회적·물리적 약자가 원역을 풀기위한 방법이기에 때문에 작품의 반영된 사회현상에서 그 동인을 찾을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元代의 통치의 이완, 관부의 부패, 사회 기강의 해이로 인한 수많은 원역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불가분의

32) 徐忠明 앞의 논문, 56쪽 참조.

관계를 가진다.

元代는 이민족인 몽고족이 중국을 지배했던 시기로 전례 없이 암울한 시기였다. 몽고족이 중국을 정복하고 왕조 건립 과정에서 중국인들을 대량으로 살육하였고 통치가 강압적이고 경제적인 수탈이 심하였다. 왕조 초기 통치기반이 공고해지기 전에 권력다툼으로 내분이 잦아 정치가 혼란한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³³⁾ 몽고 통치자는 중국에서 기왕에 시행되었던 과거제도를 폐지하고 자질과 소양이 부족한 몽고 귀족과 침략전쟁에서의 功臣을 중심으로 관료층을 구성하여 관료의 질이 크게 저하되었다. 정치·군사 부문의 대권은 모두 蒙古 혹은 色目人의 귀족이 차지하고 관직은 世襲·承蔭의 방법으로 친족이나 자손에게 세습되었다. 胥吏는 각 지방의 官家에서 인정 관계나, 뇌물 청탁을 통하여 흡수한 자들로 충당되었다. 이들은 충분한 儒家의 經史나 예의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로서, 글을 대충 읽을 줄 아는 정도의 인물이며, 일단 관직을 갖게 되면 지위를 빌려 백성들을 괴롭히는, 貪官보다 더 후안무치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자들이다.³⁴⁾ 왕조 초기에 통치체제가 공고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방 관리들은 일정한 봉급이 없고, 능력에 따라 돈을 벌고 생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파행적인 관료 체계는 관료의 질 저하와 부패로 직결되었다.

이완된 통치와 관부의 부패는 많은 사회적 병폐를 초래하였다. 권세가·무뢰한·강도 등 사악한 세력이 무소불위의 악행을 일삼았다. 이들은 약자를 능멸하고, 평민들을 해치고 재물을 편취하고, 부녀자를 강탈하고, 관가와 결탁하여 관기를 자기 집처럼 생각하기도 하였다.³⁵⁾ 이러한 상황에서 평민들은 원역한 일을 당하여도 관부가 부패하여 호소할 곳이 없었다. 바로 「이는 모두 관리들이 법을 바르게 집행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구나」³⁶⁾, 「예로부터 관아의 문은 남쪽으로 열려 있지만 그 안에는 억울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다」³⁷⁾는 표현이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다. 사회에 원역한 일이 만연하는데 호소할 데가 없는 상황, 관부에 대한 불신, 법률에 대한 실망은 복수주제의 한 배경이 되었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꼭 언급해야 할 것이 있다.

33) 劉蔭柏, 《元代雜劇史》(花山文藝出版社, 1990), 1쪽 참조.

34) 金諍, 《科學制度與中國文化》(上海人民出版社, 1991), 154~155쪽 참조.

35) 顧學頤, 《元明雜劇》(上海古籍出版社, 1979), 7쪽 참조.

36) 《竇娥冤》第四折【一煞】: 「這都是官吏每無心正法, 使百姓有口難言。」

37) 《竇娥冤》第四折【收江南】: 「衙門從古向南開, 就中無個不冤哉。」

앞에서 開封府·森羅殿·梁山泊과 그곳을 다스리는 包拯·東嶽大帝·綠林好漢에게 대등한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 흥미롭다³⁸⁾. 모두 정의의 법정이고 정의의 관이다. 이것은 대단한 역설이다. 관부가 부패하고 탐관오리가 창궐하는 암울한 현실이 開封府와 包拯이라는 이상적인 법정과 관료를 만들어 내었다. 더 나아가 관부에 대한 극단적인 불신·절망·분개는 解冤과 복수를 아예 명계의 신령에게 위탁하게 만들었다. 梁山泊이란 사실 법정은 더욱 그렇다. 사회의 범죄는 의당 국법의 집행기관인 관가에서 치죄할 사안이다. 이른바 “治世”라고 하는 통치 질서가 공고하고 기강이 확립된 정상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元代 사회에서는, 적어도 수호극에 반영된 元代 사회는 관부가 부패하고 무능하여 소임을 완수하지 못한다. 이를테면, 권세가가 무수한 악행을 일삼아도 그가 권력의 비호를 받기 때문에 치죄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범죄 당사자가 아예 판관이 되어 원고를 도리어 사형수로 몰아넣는 울지도 웃지도 못할 행태가 벌어진다. 이러한 사회 현상이 양산박 산채를 도덕 법정으로 미화하는 동인이다. 백성들은 관가가 아닌 양산박을 찾아 억울함을 호소한다. 바로 「다른 곳에 고소해 보아야 그 악당을 제압할 수 없으니 宋江 형님께 고소하러 간다」³⁹⁾고 한다. 작중 인물이 양산박 호한이 시비를 명명백백히 가리고,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사악한 세력을 제거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치켜세우는 예가 많이 있다. 양산박이 도덕성이나 법집행이 관가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이다. 민중의 절실한 희망이 기탁되어 미회된 결과이지만, 비정상 시기의 왜곡된 의식의 반영이다.

한편, 원잡극의 복수주제는 당시 지식인 작자들의 불우한 처지와 관련을 가진다.

元代에는 과거제도를 폐지하여 한족 지식인들의 入仕의 출로를 차단하였다. 지식인의 사회적 지위는 종래 “四民之首”에서 천길만길 나락으로 떨어져, 가장 천한 거지보다 겨우 한 단계 위인 “九儒十丐”⁴⁰⁾로 묘사되었다. 그들은 정치적 출로를 상실하고 경제적으로 곤궁해 지조를 꺾고 포부를 낮추어 唐·宋과 같은 기왕의 사회

38) 關漢卿, 〈魯齋郎〉 第四折에서는 「둥둥 관아의 북소리 울리고, 아전들이 양 쪽으로 줄지어 서 있으니, 염라대왕의 생사전이고, 동악대제의 撮魂臺이다.(擘擘衙鼓響, 公吏兩邊排, 閻王生死殿, 東岳撮魂臺.)」라고 하여 명계의 법정의 권위를 끌어들이고 관아의 권위를 선양하기도 한다.

39) 無名氏, 〈黃花峪〉 第一折: 「我別處告, 近不得他, 直往梁山上告宋江哥哥走一遭去。」

40) 鄭所南, 〈大義略序〉, 〈心史〉 卷下: 「一官二吏三僧四道五醫六工七獵八匠九儒十丐」

에서 지식인들이 무시하던 吏員으로 들어갔다.⁴¹⁾ 아니면 생계의 수단으로 “書會”로 들어가 기녀·하층민들과 생활하면서 기왕의 사회에서 “小道”로 간주했던 잡극 창작에 종사하여 생계를 꾸리기도 하였다.

원잡극 작자들은 자신의 창작하는 잡극에서 자화상을 그렸다. 미친한 유생이 고관과 貴人에게 멸시당하거나, 부잣집 하인들에게 냉대 받거나, 장사꾼들에게 모욕당하거나, 기생집 여주인에게 조롱받고, 심지어는 생계를 꾸릴 능력이 없다고 아내에게 이혼을 강요당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들은 구차한 처지를 한탄하고 울분을 토로하고, 불평등한 사회에 대해 분개하고 항의하기도 하였다. 「봉황이 새장에 갇혀 있었다」고, 「나는 본래 가난한 유생, 평생 紅塵 속에 묻혀있는 칠 척의 몸 맡길 곳 없다」⁴²⁾, 심지어는 「經書가 자기를 굶어죽고 엮어죽게 만들었다」⁴³⁾고 분개하였다. 그들이 파악한 사회는 「당당한 大元 王朝에 간신과 소인배가 대권을 장악한다」, 「관법이 혼란하고 형벌이 가혹해 백성들의 원한이 자자하다」, 「도적이 관리가 되고 관리가 도적이 되었다」⁴⁴⁾고 분개하였다. 지식인의 이러한 울분·분개·항의는 그들의 창작에 복수로 반영되었다.

2. 문화적 배경

元雜劇에서 복수주제는 몇 가지 문화적 배경을 가진다. 바로 복수를 찬양하고 지지하는 문화적인 관습, 중국인이 특히 중시하는 ‘報’의식과, 因果報應이 그것이다. 복수주제는 이러한 문화를 표현하는 한 방식이기도 하다.

宋代 이래로 중앙집권이 강화되면서 복수는 점차 국가 법률이 금지하는 대상이 되었고⁴⁵⁾ 이성적인 사유가 반대하는 대상이지만 문학에서는 찬양의 대상이었다.

41) 金諍 앞의 책, 156쪽 참조.

42) 馬致遠, 〈薦福碑〉第一折【仙呂點絳脣】: 「我本是那一個寒儒, 半生理沒紅塵路。則我這七尺身軀, 可怎生無一個安生處。」

43) 馬致遠, 〈薦福碑〉第一折【油葫蘆】: 「凍殺我也論語篇孟子解毛詩註。餓殺我也尙書云周易傳春秋疏。」

44) 陶宗儀, 《輟耕錄》卷二十三: 「堂堂大元, 奸佞專權。開河變鈔禍根源, 惹紅巾萬千。官法濫, 刑法重, 黎民怨。人吃人, 錢換錢, 何曾見。賊做官, 官做賊, 混愚賢, 哀哉可憐。」

45) 張國風, 《公案小說漫話》(香港: 中華書國, 1989), 29쪽 참조.

그 이유는 복수 행위가 〈蝴蝶夢〉·〈陳州糶米〉 등에서 孝, 〈趙氏孤兒〉·〈伍員吹嘯〉에서 孝와 忠, 〈豫讓吞炭〉에서 義와 같은 윤리도덕과 정의를 실천한다는 명분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복수 행위는 대상 작품의 서사구조 중에서는 물론 사회적으로 널리 지지받았다.

복수 행위는 서사구조 내에서 지지받는다. 이 중에는 사적인 報恩이 동기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정의로운 행위라는 가치관이 주된 동기이다. 〈趙氏孤兒〉와 〈伍員吹嘯〉에서는 간신이 충신의 일족을 몰살시켰기 때문에, 복수는 孝와 忠의 윤리를 실천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많은 지지를 받는다. 〈趙氏孤兒〉에서는 韓厥·程榮·公孫杵臼가 혹은 부귀영화에 대한 유혹을 거절하거나 혹은 아들은 희생하거나 혹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등 엄중한 대가를 치르면서도 복수를 지지·지원하거나 아예 앞장 서 주도한다. 〈伍員吹嘯〉에서도 養由基·浣紗女·閻丘亮·鱗諸도 혹은 암묵적으로 혹은 공개적으로 伍子胥의 복수를 돕거나 지지하는 인물이다. 공안극과 수호극에서 청렴한 관리·명계의 신령·녹림호한은 형식적으로는 정의를 주재하는 판관의 자격으로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복수의 강력한 지지자이다.

고대의 중국에서는 예교와 사회여론이 복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예가 많이 있었다. 唐, 전기소설 〈謝小娥傳〉에서 謝小娥는 자신의 부친과 남편을 죽인 원수에게 복수를 한 행위가 貞婦·孝婦의 기절을 보여주었다고 칭찬을 받았다. 曹植은 〈精微篇〉에서 「賢女가 장년이 되어 아버지 복수를 하여 몸은 죽었지만 후세에 功名을 남겼다고, 李白은 〈東海有勇婦〉에서 지아비를 원수를 살해하여 복수한 아녀자를 「대의를 찬란하게 밝혔다(燦然大義明)」고 치켜세웠다. 이처럼 복수를 정당하다고 간주하고 지지하고 찬양하는 문화적 관습은 복수주제의 한 배경이 되었다.

복수주제는 중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報'의식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복수주제의 대상 작품에서 복수는 고립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 상대되는 개념의 報恩과 병행하여 다루어진다. 바로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갚아야 하고 원한이 있으면 원한을 갚아야 한다(有恩報恩, 有仇報仇)”고 하여 복수와 보은을 함께 인식했다. 이것은 언어의 관습일 수도 있겠지만 '報'의식을 잘 반영하였다고 본다. 복수 즉 '報仇'는 '報恩'과 반대되고 개념이지만 '갚는다(報)'로, '받은 대로 돌려준다(一還一報)'로 통일된다. 다음 진술은 중국인의 '報'의식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중국어에서 ‘報’라는 이 단어는 報告·報答·報償·報仇 및 報應을 포함하는 광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어휘들의 핵심되는 의미는 바로 반응 또는 환보로서, 이러한 관념은 중국의 사회관계의 중요한 기초이다. 중국인들은 행동의 상호작용(사랑과 증오, 상과 벌과 같은)을 믿고, 인간과 인간 간에서나 인간과 초자연 간에서도 확정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이 때문에 중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 상대방으로부터의 어떤 반응이나, 보답을 예상한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시혜는 보통 사회 투자로 간주되어 장래에 상응하는 보답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물론, 실제로 어떤 사회에서도 이러한 상호 보상의 원칙은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다른 점은 이러한 원칙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의 존재를 강하게 의식해 왔고, 사회 제도에 광범하게 응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깊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中文裏‘報’這個字有很廣範的意義, 包括報告、報答、報償、報仇, 以及報應。這一些名詞的中心意義是反應或還報, 而此一觀念是中國社會關係中重要的基礎。中國人相信行動的交互性(愛與憎, 賞與罰), 在人與人之間, 以至人與超自然之間, 應當有一種確定的因果關係存在。因此, 當一個中國人有所舉動時, 一般來說, 他會預期對方有所反應或還報。給別人的好處通常被認為是一種社會投資(social investments), 以期將來有相當的還報。當然, 實際上每一個社會中這種交互報償的原則是被接受的, 而在中國, 其不同之處是這項原則有由來久遠的歷史, 高度意識到其存在, 廣範地應用於社會制度上, 而且產生深刻的影響。)⁴⁶⁾

복수주체의 대상 작품에서는 복수의 시말이 서사의 중심축이 되는데, 그 이면에는 보은의 서사 과정이라는 또 다른 갈래를 찾을 수 있다. 복수자는 복수에 강렬하게 집착하지만 보은 또한 대단히 중시한다. 복수의식만 뿐 아니라 보은의식도 강하다. 伍子胥는 費無忌 군대의 추적을 피해 도망칠 때 자신을 죽이지 않고 놓아준 費無忌 휘하 장군 養由基와, 자신의 도주를 도와주기 위하여 자결한 浣紗女와 閻丘亮의 은혜를 중시하여 훗날 본인 또는 가족에게 보답하였다 <趙氏孤兒>에서도 悼公은 程勃에게 친족의 원수를 갚게 하고 그의 복수를 도운 韓厥·程榮·公孫杵臼의 은혜에 보상을 내린다. 공안극과 수호극에서도 범죄자에 대한 치죄와 함께 피해자 측에게 가문의 정표, 벼슬 제수, 경제적 이익 등과 같은 보상을 병행한다. 심지어 <竇娥冤>에서 水陸道場을 지어 薦度齋를 지내주고, <硃砂擔>에서는 「억울하

46) 楊聯陞, 殷昌國 譯, <報—中國社會關係的一個基礎>《中國思想與制度論集》, 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1976), 350쪽 참조.

게 죽은 두 사람의 冤鬼를 보상하여 내세에 형통하도록 해 준다」⁴⁷⁾고 판결하여 冤鬼에게도 보상을 안배하고 있다. 이처럼 복수주제의 대상 작품에서는 “冤冤相報”만이 아닌 “恩恩相報”도 순환의 고리로 연결하고 있다. 이는 중국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린 ‘報’의식을 도해한 것이라 하겠다.

복수주제의 대상 작품에는 또 因果報應 사상이 짙게 깔려 있다.

복수는 본래 인간의 사회관계에서 발생하는 윤리도덕의 문제인데 현실사회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초월적 역량이 개입하면서 종교의 문제로 전이되는 것이 중국문화의 관례이다. 그 매체는 중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인과보응 사상이다.

인과보응은 果報라고 하기도 하는데 중국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불교의 기본 교의이다.⁴⁸⁾ 인과보응은 사물에 起因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선한 행위나 악한 행위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보응이 있다는 이론이다.⁴⁹⁾ 그래서 “선한 행위에는 선한 보답이 있고, 악한 행위에는 악한 보답이 있다(善有善報, 惡有惡報)”고 설교하여 사람들에게 선행을 권장하고 악행을 경계한다.

인과보응 사상의 근원은 복잡하지만 유가 경전의 전통, 도교신앙과 불교사상의 영향으로 개괄할 수 있다.⁵⁰⁾ 인과보응은 불교의 교의이기는 하지만 불교가 전래되기 이전에 이미 이러한 관념은 중국에 존재하고 있었다. 儒家의 경전에서 보이는 「선행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복이 있고, 악행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재앙이 있다」⁵¹⁾, 선한 행위를 쌓지 않으면 聲譽를 얻을 수 없고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자신을 망치지 않는다는⁵²⁾는 권선징악적인 설교가 대표적이다.

한편 도교는 유가나 불교에 비해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여 민간과 쉽게 접촉할 수 있어 보응사상을 많이 확산시켰다. 도교는 東晉 이후 불교와 접촉하면서 그 영향이 두드러졌지만 그 전에도 인과보응의 교의가 대량으로 존재했다.⁵³⁾ 초기 도교

47) 無名氏, 〈硃砂擔〉第四折: 「其屈死一雙怨鬼, 償還他來世享通。」

48) 王猛, 〈略論中國古代小說和戲曲中的因果報應觀念〉, 《洛陽師範學院學報》, 2001年第3期.

49) 《漢語大詞典》: 「佛教依据未作不起、已作不失的理論, 認爲事物有起因必有結果, 作善作惡, 必各有報應。」(北京: 漢語大詞典出版社), 1993.

50) 徐忠明 앞의 논문 58쪽 참조.

51) 《周易·坤》: 「積善之家必有余慶, 積不善之家必有余殃。」

52) 《周易·系辭》: 「善不積不足以成名, 惡不積不足以滅身。」

53) 劉道超, 《中國善惡報應習俗》(西安: 陝西人民出版社, 2004), 44-45쪽 참조.

의 경전인 《太平經》에는 「악을 행하면 명을 재촉하고 선을 행하면 명을 늘린다(爲惡則促, 爲善則延)」, 「착한 사람은 스스로 흥하고 악한 사람을 스스로 망한다. ……천도는 공평무사하여 행한 대로 이른다」⁵⁴⁾ 등의 인과보응의 설교가 도처에 보인다.⁵⁵⁾ 漢代 이래로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면서 보응사상은 더욱 유행하게 되었다. 불교가 점차 중국의 실정에 적응함에 따라 儒·道·佛이 합류하면서 보응사상은 민간종교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신앙의 하나가 되었다.⁵⁶⁾

보응사상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중국의 사회심리와 사회도덕에 깊은 영향을 끼쳤고⁵⁷⁾, 중국문학의 永恆한 주제이기도 하다⁵⁸⁾. 宋代 이후로 소설·희곡·설창 등 속문학에서 권계 의도로 인과보응이 많이 설교되었다. 본고에서 고찰하는 작품의 경우를 보자.

선한 행위에는 선한 보답이 있고, 악한 행위에는 악한 보답이 있다. 하늘이 서리를 내리지 않으면 松柏이 썩과 구분될 수 없고, 신령이 보응하지 않으면 적선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만 못하다. (便好道善有善報, 惡有惡報, 天若不降嚴霜, 松柏不如蒿草, 神靈若不報應, 積善不如績惡。) (《硃砂擔》第二折)

신령의 보응이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 것을 어찌 두려워하지 않는가. 남의 집에 들어가거나 길에서 물건을 강탈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을 일로 생각하지 말라. 천당과 지옥이 왜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豈不怕神明報應無差錯, 休看的打家截道尋常事, 你則想地獄天堂爲甚麼。) (《盆兒鬼》第二折〔二煞〕)

인과보응 사상의 친절한 해설이라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복수주제를 드러내는 작품에 보응사상이 대량 반영된 것은 수궁할 수 있다. 공안극과 수호극에 반영된 사회는 관부가 부패하고 법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아 백성들은 冤抑을 해소

54) 《太平經》卷一百: 「善者自興, 惡者自病, 吉凶之事, 皆出於身, 以類相呼, 不失其身。天道無私, 但行之所致。」

55) 陳霞, 《道教勸善書研究》(成都: 巴蜀書社, 1999), 119-120쪽 참조.

56) 蔚遲治平·席嘉, 앞의 책, 4쪽 참조.

57) 邱瑾, 〈關乎權力與性的因果報應—從《玉米》與《陳御史巧勘金釵鈿》說起〉(《當代小說(下)》2010. 4), 44쪽 참조.

58) 金曉, 〈同中有异的因果輪回報應觀—比較《玉米》和《蔣興哥重會珍珠衫》〉(《當代小說(下)》2010. 5), 54쪽 참조.

할 방법이 없었고, 여기에 대응하여 개봉부·명계의 범정·양산박이 등장했다고 앞에서 설명했다. 국가의 법률이 권위를 상실하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인간의 죄악이 정치되지 않고 대중이 원역을 호소할 데가 없다면 신령의 권능과 같은 초월적인 역량을 모색하는 것은 필연적인 선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善有善報, 惡有惡報”하다는, 그것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적용된다는 신앙은 무력한 대중이 신원하고 복수하는 가장 강력한 권능이자 정신적인 위안이라고 하겠다. 이것이 속문학. 특히 원대와 같은 암울한 시기에 태어나는 속문학에 인과보응 사상이 많이 반영되는 동인이다.

IV. 결론

이 논문에서는 元雜劇 中の 복수주제를 먼저 대상 작품의 범위를 정한 후, 다시 공통성을 가진 두 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하나는 역사사실에서 제재를 취한 몇 편의 역사극이 한 유형이고, 현실생활에서 제재를 취한 공안극과 수호극 중의 일련의 작품이 또 한 유형이다. 이 두 유형은 소재가 역사사실과 현실사회라는 차이 외에도 복수의 동기·주체·과정이 성격을 달리한다.

역사극은 복수의 동기가 患奸의 대립이나 권력투쟁에서 비롯된다. 복수의 주체는 피해 당사자이다. 이 유형은 복수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가 서사의 중점이다. 그래서 복수 주체가 복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난과 역경, 복수 대상과의 대결, 복수심을 불태우는 양상 등은 모두 탄탄한 극조구조를 이루는 핵심이 된다. 이 유형의 복수주제는 孝·忠·義와 같은 전통적인 윤리규범이 복수의 명분이 된다.

공안극과 수호극에서 복수의 동기는 사회의 다양한 범죄에서 비롯되고 복수의 주체는 피해자 자신이 아닌 제3의 역량이 된다. 모두 범죄의 발생과 정치과정을 서사의 축으로 하고 가해자·피해자·판관이라는 행위체가 역학구조를 이룬다. 사악한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피해자는 원역을 맺고, 강렬한 복수심을 가지고 복수자로 변이된다. 피해자는 복수심을 강하지만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역량으로 복수를 이행할 수 없고 복수는 제 3의 행위체인 판관에게 넘어간다. 판관은 피해자의 복수의 대행자가 된다. 이 판관은 관가의 “淸官”, 명계의 신령, 녹림호한이

되기도 한다. 관관은 판결을 통하여 범죄자를 징치한다. 범죄의 징치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복수이거나 복수적인 성격을 띤다.

복수주제의 배경은 크게 사회적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적인 배경은, 복수가 본래 사회적·물리적 약자의 원역을 해소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작품에 반영된 사회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元代는 몽고족의 파행된 통치와 불합리한 관료체제로 인하여 관부가 부패하고 사회가 혼란한 시기였다. 세도가·강도·무뢰한 등 사악한 세력이 창궐하여 대중은 많은 원역한 일을 당하여도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대중의 관부에 대한 불신, 법률에 대한 실망은 복수주제의 한 배경이 되었다. 둘째, 지식인들은 과거제도가 폐지되어 입사의 길이 막히어 사회적인 지위가 크게 하락하였다. 지식인은 자신이 처한 곤궁한 처지와 가치가 전도된 암울한 현실에 대해 울분을 토하고, 항의하고 분개하였다. 지식인의 울분·분개·항의는 자신이 창작하는 잡극에서 복수주제의 형태로 반영되었다.

문화적 배경은, 복수를 찬양하고 지지하는 문화적인 관습, 중국인들에게 특히 강한 ‘報’의식과 因果報應 세 분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첫째, 복수는 孝·忠·義와 같은 윤리도덕과 정의를 실천한다는 명분 때문에 사회적으로 널리 지지받았다. 중국문학에서 특히 속문학에서 복수가 찬양되는 예는 무수히 많다. 복수를 지지하고 찬양하는 문화는 복수주제의 작품을 탄생시키는 한 배경이 되었다. 둘째, 전통적으로 중국인들은 ‘報’의식이 강하여 인간의 사회관계에서 상호보상의 원칙을 중시하였다. 복수주제의 대상 작품에서는 “有恩報恩, 有仇報仇”라고 하여 복수와 보은을 함께 또 대동하게 의식하였다. 복수 즉 ‘報仇’는 ‘報恩’과 상대되는 개념이지만 ‘값는다(報)’로 통일되어 있다. 그래서 복수의 주체는 가해자에게 복수도 하지만, 피해자나 복수를 지원한 조력자에게 폭넓은 보상이 이루어진다. 셋째, 因果報應은 “善有善報, 惡有惡報”를 핵심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선행을 권장하고 악행을 경계한다. 인과보응은 유가·도교·불교의 영향으로 중국문화에 깊이 뿌리를 내려 사람들의 의식, 사회심리, 윤리도덕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문학의 永恆한 주제가 되었다. 특히 宋代 이후로 소설·희곡·설창 등 속문학에서 권선징악의 권계의도로 많이 설교되었다. 원잡극에서 경우 〈硃砂擔〉에서는 인과보응이 서사구조의 핵심이 되고, 기타 작품에서도 권계의 의도로 인과보응의 설교가 많이 사용되었다.

【參考文獻】

- 高益榮,《元雜劇的文化精神闡釋》,北京,社會科學出版社,2005.
- 顧學頡,《元明雜劇》,上海古籍出版社,1979.
- 金靜,《科舉制度與中國文化》,上海,人民出版社,1991.
- 塗秀虹,《元明小說戲曲關係研究》,上海,三聯書局,2004.
- 徐忠明,《包公故事——一個考察中國法律文化的視覺》,中國政法大學出版社,2002.
- 隋樹林編,《元曲選外編》(全3冊),北京:中華書局,1987.
- 王立,《中國古代復仇文學主題》,北京,北京師範大學出版社,1998.
- 蔚遲洽平·席嘉,《因果解讀》,廣西民族出版社,1999.
- 劉道超,《中國善惡報應習俗》,西安,陝西人民出版社,2004.
- 劉麗文,《歷史題材劇研究》,北京,北京廣播學院出版社,2004.
- 張庚·郭漢城,《中國戲曲史》(全三冊),北京,中國戲曲出版社,1980.
- 張國風,《公案小說漫話》,香港,中華書國,1989.
- 臧懋循編,《元曲選》(全4冊),北京,中華書局,1989.
- 鄭傳寅,《中國戲曲文化概論》,武漢,武漢大學出版社,1993.
- 丁肇琴,《俗文學中的包公》,文津出版社,2000.
- 正學奇 主編,《元曲選校注》(全四冊),河北教育出版社,1994.
- 陳霞,《道教勸善書研究》,成都,巴蜀書社,1999.
- 金烈圭,〈怨恨과 文學의 만남〉,《韓國文學의 두 問題》,서울,學研社,1985.
- 金曉,〈同中有异的因果輪回報應觀——比較《玉米》和《蔣興哥重會珍珠衫》〉,《當代小說(下)》2010年 5期.
- 練素華,〈中國古代敘事文學中的血親式復仇母題初探〉,《湘潭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第30卷 第5期,2008年 9月.
- 徐忠明,〈傳統中國民衆的伸冤意識: 人物與途徑〉,《學術研究》2004年 12期.
- 邱瑾,〈關乎權力與性的因果報應——從《玉米》與《陳御史巧勘金釵鈿》說起〉,《當代小說(下)》2010年 4期.
- 蘇力,〈復仇與法律——以《趙氏孤兒》爲例〉,《法律研究》2005年 第1期.
- 楊聯陞, 殷昌國譯,〈報——中國社會關係的一個基礎〉,《中國思想與制度論集》,臺北,聯經出版事業公司,1976.
- 楊海波,〈論元雜劇的悲劇精神〉,《甘肅高師學報》第6卷 第3期,2001.
- 葉三銘,〈元雜劇中復仇之情節與人物〉,國立成功大學 藝術所 碩士學位論文,1999.
- 王猛,〈略論中國古代小說和戲曲中的因果報應觀念〉,《洛陽師範學院學報》,2001年 第3期.

李真瑜,〈略論元代“綠林雜劇”〉,《中國古代·近代文學研究》,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 報刊資料選匯,1986年 第5期.

李春祥,〈元人雜劇反映元代民族關係的幾個問題〉,《河南師大學報》1980年 第2期.

鄭振鐸,〈元代“公案劇”產生的原因及特質〉,《鄭振鐸選集》(第二卷),四川文藝出版社,1990.

宗敏,〈元雜劇中的復仇題材—以《竇娥冤》和《趙氏孤兒》為例〉,《文藝論叢》2007年 11月.

胡淑芳,〈元雜劇的復仇精神〉,《湖北大學學報》第31卷 第5期,2004.

【中文提要】

本文主要考察了元雜劇中復仇主題類型、特點和背景。

現存的元雜劇中以復仇為題材的劇目很多。幾部歷史劇以復仇故事為題材,他們大都取材於有名的史實,劇中的復仇者一心為復仇,幾經磨難,最後得到社會的支持進行復仇的情節為基本模式。公安劇和水滸劇中的復仇指受害者因多種原因受害而造成了冤抑,解除這個冤抑的過程。這種劇目中,沒有報私仇的劇目,一般通過清官、冥界神靈、綠林好漢執行刑罰惩治邪惡的罪犯為復仇的基本精神。他們不僅僅是替老百姓申冤的主體,伸張正義的力量,而且是寄託了處在黑暗社會裏小民百姓期望的正義的判官。

元雜劇中的復仇主題,以官俯腐敗,貪官污吏恣意橫行,給老百姓造成了種種冤抑,但無權無勢的社會弱者却無處申冤的暗鬱為社會背景:以傳統的復仇思想,人際關係中注重“報”的倫理觀,滲透社會深處的因果報應的習俗為文化背景。

【中文提要】

復仇主題、伸冤、清官、冥界神靈、綠林好漢、報、因果報應